

사랑하는 자녀들아.

오늘도 나는 너희들을 기도하라고 부른다. 나의 자녀들아 기도는 기적을 이룬다. 너희가 지치고 병들어 삶의 의미를 잃었을 때에 목주를 들고 기도하여라. 기도가 구세주와의 기쁨의 만남이 될때까지 기도하여라. 나의 자녀들아 나는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를 위하여 중재의 기도를 하고 있단다.

나의 부름에 응답하여 주어 고맙다.

◆✿◆✿◆✿◆✿◆✿◆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느님 당신께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성모님을 보내 주심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성모님의 이끄심에 따라 당신께 청하오니, 기도 안에서 당신께 마음을 여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 앞에서 사랑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는 은총을 주시옵소서. 태양빛 아래 피어나는 꽃처럼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당신 앞에 머무름을 기뻐하며 감사드릴 수 있는 은총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모든 이의 마음 안에 사랑과 온화함의 성령을 보내주시어 우리 마음의 이기심과 차가움이 사라지고 달한 마음이 열리게 해 주소서. 그리하여 당신의 사랑과 따스함이 우리 안에, 다른 모든이들 안에 함께하시어 우리 모두가 주님께 사랑을 돌려 드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회개의 은총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도록 모든 불신과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소서. 지금 이때에 주시는 은총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자주 당신을 멀리계신 분으로만

여기는 우리를 용서하소서. 우리가 당신의 말씀 안에서, 성체 안에서, 자연 안에서 당신을 알고 그리고 특별한 방법으로 만나게 되는 다른 이들 안에서 당신을 알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과 마음을 열어 주소서. 특히 버림받고, 가난하고, 병든 이들을 위해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옵소서. 그들을 통하여 우리는 당신을 가장 쉽게 만나 볼 수 있기 때문이옵니다. 아버지 하느님, 우리의 가정과 온 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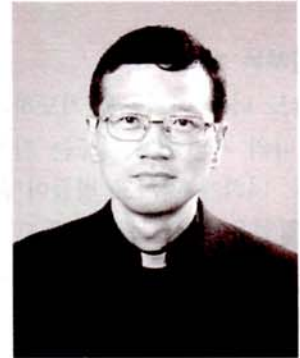


발행인 : 김한기 시몬 신부 편집인 : 남홍익 그레고리오

평화의 모후 센터 U.S.A.

회를 축복하소서! 성령을 보내 주소서! 성모님의 중재하심으로 온 세상이 쇠신되어 새로워지게 하소서. 하느님 당신이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아버지이신 당신께 충실할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도 우리에게 회심할 수 있는 축복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는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 사랑의 증거자가 되게 하소서. 아멘. 1998년 4월 / 슬라브코 신부님의 글

## “성모님의 일편단심을 본받으며 살자 !”



김일영 베드로 신부  
뉴욕 퀸즈한인천주교회 부주임

**맑은** 하늘 5월은 성모님의 달입니다. 교회는 매년 5월을 구세주의 어머니이신 성모 마리아를 기억하고 공경하여 성모님의 모범에 따라 하느님의 뜻에 순종하는 생활을 하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성모 마리아를 공경하는 뜻은 인류 구원을 위해 하느님의 뜻에 순종하신 신앙의 모범을 따르고 동시에 성모님을 통해 하느님의 은총을 전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생활을 닮는 것입니다. 이런 성모님의 모습이 성서에 많이 나타나지는 않지만 그래도 잘 살펴보면 성모님의 일편단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첫째, 주님 말씀을 굳게 믿고 순종하시는 분

처녀 마리아가 아기를 갖게 된다는 천사의 말씀에 “이 몸은 처녀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며 의아해 하지만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은 안 되는 것이 없다”는 천사의 말을 들은 마리아는 즉시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지금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 지기를 바랍니다” 하고 믿음으로 대답하셨습니다 -루가 1, 38-. 전능하신 하느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받아들이는 성모님은 이 세상에 구원 사업의 협력자이시며 신앙인의 모범이십니다. 이 점이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탁월한 모범입니다.

### 둘째, 하느님의 율법을 충실히 지키시는 분

모세가 정한 법대로 정결 예식을 치르는 날이 되자 부모는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 갔다. 그것은 “누구든지 첫아들을 주님께 바쳐야 한다”는 주님의 율법에 따라 아기를 주님께 봉헌하려는 것이었고 또 주님의 율법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정결례의 제물로 바치려는 것이었다 -루가 2,22-24-

율법은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참 삶의 길로 누구나 지켜야 하는 말씀이다. 성모님은 율법을 통한 주님 말씀을 생명보다 더 소중히 여기며 사시는 분이다. 예수님도 율법을 없애려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려 오셨다고 하셨다. -마태 5, 17-

### 셋째, 이웃의 필요를 잘 알고 채워주시는 분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과 그 제자들과 함께 초대 받으신 성모님은 잔치 도중에 포도주가 다 떨어지자 예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도움을 청하셨다 -요한 2,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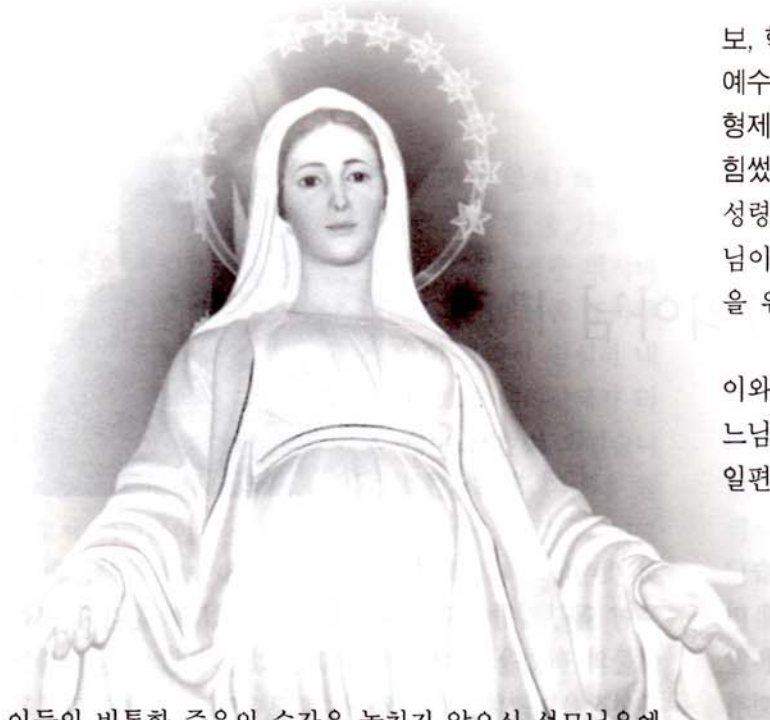
그리고는 성모님은 하인들에게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하고 일렀다 -요한 2, 5-

포도주의 기적으로 그날 잔치를 한층 더 흥겹게 하심은 말할 것도 없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웃의 필요를 채워줄 줄 아시는 성모님 이십니다.

### 넷째, 예수님의 길을 항상 함께 걸으시는 분

예수님을 잉태하신 순간부터 부활 승천하시기 까지 항상 예수님이 계신 곳에 조용히 함께 계셨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밑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레오파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여자 마리아가 서 있었다” -요한 19, 25-



아들의 비통한 죽음의 순간을 놓치지 않으신 성모님은 예수님 부활 승천, 성령강림 때 등등 언제나 함께 계셨으리라는 것을 능히 알 수 있습니다. 성모님의 온 생애는 예수님이 걸으신 구원 사업에 함께 하신 일생이었습니다.

**다섯째, 십자가상의 예수님께서 성모님을 제자들에게 어머니로 맡겨주시어 우리 어머니가 되신 분**

“예수께서는 당신의 어머니와 그 곁에 서 있는 사랑하시는 제자를 보시고 먼저 어머니에게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하시고 그 제자에게는 ‘이 분이 네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이때부터 그 제자는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셨다” - 요한 19, 26-27-

이제 온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유언하신 그 뜻을 받들어 성모님을 우리의 어머니로 모시고 함께 살아 갑니다. 어머니는 우리를 위해 얼마나 기도를 해 주는지 그 누가 알겠습니까!, 성모님을 어머니로 모시고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섯째, 교회 공동체와 함께 계시며 항상 기도하시는 분**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령강림을 기다립니다.

“성안에 들어 온 사도들은 자기네가 묶고 있던 이층방으로 올라갔는데 그 일행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아, 필립보, 토마, 바르톨로메오, 마태오, 알패오의 아들 야고

보, 혁명당원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였다. 그 자리에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비롯하여 여러 여제들과 예수의 형제들도 함께 있었다. 그들은 모두 마음을 모아 기도에만 힘썼다” - 사도 1, 13-14-

성령 강림을 기다리며 제자단들과 함께 기도하시는 성모님이십니다. 성모님은 오늘날, 바로 지금도 교회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와같이 성서에 나타나듯이 성모님은 예수님과 함께 하느님의 구원 사업에 당신 생애를 봉헌하신 분 이십니다. 일편단심, 하느님의 뜻을 따라 사시는 분 이십니다. 교회

는 이처럼 하느님 구원 사업에 당신 삶을 봉헌하신 성모님을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한 분 하느님 이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본받고 따라야 할 분으로 제시하고 공경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역대 교황님들도 성모신심에 관해

그 중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해왔고 특히 올바른 성모신심을 환기시키셨습니다.

우리가 성모 마리아를 공경하는 것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 하느님의 뜻에 순종하신 신앙의 모범을 따르기로 다짐하는 한편 성모님을 통해 하느님의 은총을 전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모님의 모범을 따라 믿음, 순종, 선행과 기도로 자신을 하느님께 봉헌하고 은총을 얻어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이 성모님 공경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모신심이 자칫 발현이나 기적에 치우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이보다는 전례적인 공경 안에서 이뤄질 것을 강조했습니다. 교황 바오로 6세도 마리아 신심운동이 기적이나 발현에 치우치지 말고 전례적인 공경 안에서 바르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성모님의 일생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성모님의 성덕에 이르는지 그 길을 배우게 됩니다. 성모님의 믿음, 순종, 기도, 선행 등의 그 마음을 닮아 변화된 생활이 뒤따라야 성모님께서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루가 복음에 보면 한 여자가 군중 속에서 큰소리로 예수님께 당신처럼 훌륭한 아들을 둔 어머니는 얼마나 행복하겠느냐고 외치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오히려 행복하다” - 루가 11,28- **M**

## “오, 어머니 마리아님 !”



박효철 신부  
켄사스 한인성당 주임

**모든** 동물에게는 귀소본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우도 죽을 때는 자기 동굴을 향해 머리를 둔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다급하면 먼저 엄마를 찾습니다. 어린 학생들이 학교에서 집에 돌아와 제일 먼저 찾아 부르는 이름도 엄마입니다. 병아리가 암탉의 품을 본능적으로 찾듯이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엄마 어머니는 우리들의 몸과 마음의 본향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본능적으로 아이의 목소리를 알아듣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아무리 많은 사람들과 섞여 있고 시끄러운 소음 속에서도 자기 아이의 울음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여인은 가냘프나 어머니는 위대하다고 합니다.

**“이 분이 네 어머니 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 때부터 그 제자는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셨다. - 요한 19, 27-**

하느님께서 마리아를 우리들의 어머니요, 나의 어머니로 짝지어 주셨습니다. 하느님의 어머니시며 천상의 모후이신 분을 나의 어머니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 어느 날 제 사제생활을 문득 돌아보니, 언제부터인가 제 삶 속에 성모님을 잊고 사는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삶이 무미건조해지기 시작했고 기도를 드려도 성사를 주례하고 미사를 집전하면서도 아무런 감흥도 없었으며, 도대체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무력감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손끝 하나 까딱하기도 싫었고 매사에 의욕을 잃고 암흑 속을 헤메이고 있었습니다. 자연 사제로서의 삶이 실증이 났고 거기서 벗어나고자 발버둥친다는 미명하에 취미 생활에만 몰두하게 되었고, 아무리 소리쳐도 응답도 없는 어둔 밤 속에서 술독에 빠져 괴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눈에 빠져 그 눈에

서 벗어나려 허우적 거릴수록 점점 더 눈에 빠져들게 되듯이 몸부림칠수록 악순환은 계속되었고, 끝간데 모를 어둠의 터널을 정처없이 걷고 있었습니다. 연말이 되어 유언장을 다시 써 가노라니 제 모습이 한없이 초라했고 죽고만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추수가 다 끝난 철지난 빈 들녘에서 비를 맞고 서있는 허수아비처럼 처량하고 외로운 느낌이었습니다. 한참을 눈물 콧물을 다 쏟아가며 울부짖다가 이문제가 어디로부터 왔으며 어디에서 시작되었나를 곰곰이 성찰하게 되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제 손에서 목주가 떨어져 나가 있었으며 제 삶의 중심에 어머니이신 성모님을 모시지 않고 있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를 모시지 않고 있으니 자연 하느님 아버지께 대한 애정도 식어 갔었고 그나마 습관적으로라도 읊고 있던 성무일도서도 어디로 간지 오래였습니다. 빈 껍데기만 남아 인간적인 잔재주만 믿고 하느님보다는 나를 더 앞세우려는 어릿광대와도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기를 좋아하고 칭찬받고 사랑받기 위해 “예”와 “아니오”를 분명하게 구별 못하고, 우유부단하게 게으름으로 적당하게 현실에 안주하며 살고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고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새해, 첫날 첫 시간을 “하느님의 어머니 티없이 깨끗하신 성모 성심”을 통해 제 일생을 새롭게 봉헌하면서 어머님을 간절히 부르며 그 품에 저를 의탁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 손 잡아주소서’ 라고 물에 빠진 사람의 간절한 심정으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새로운 희망과 결심으로 성모님을 나의 어머니로 “제 집”에 “제 삶”의 중심에 모시고 새로운 출발을 시작했습니다. 좋아하던(?) 술을 끊어 버리겠다는 결심을 어머니를 통해 봉헌했고 절제된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을 새롭게

했습니다. 작심삼일이 되지 않기 위해 ‘삼일작심’의 봉헌의 표시로 갈색 스카플라와 기적의 패 그리고 저의 주보성인이신 분도 성인의 패를 다시 목에 걸며 ‘세속과 육신과 마귀’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쉽지는 않았지만 차츰 생활이 안정되어 가고 새로운 희망이 보이기 시작할 무렵 저에게는 참으로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지난 번 주임신부로 있던 본당에서 본당 설정 10주년 기념 사업의 일환으로 성모상을 성당 앞마당에 바위로 단을 쌓아 우리들의 친근한 어머니로 옮겨 모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팡!” 하고 지축이 울리는 소리에 깜짝 놀라 뛰어 나가 보니 어처구니없고 믿기 어려운 일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성모상은 온데 간데 없고 웬 승용차가 그 위에 올라앉아 있었습니다. 아이가 없어 낮을 잃고 바라보고 있는데 그 차 속에서 자매님 두분이 얼굴이 백짓장 처럼 하얗게 되어 기어 나왔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나고 물으니 본인들도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차를 후진 시켰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고개를 가우뚱 거릴 뿐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일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질 않았습니다. 일부러 가속 페달을 밟아도 승용차가 후진하여 바위를 타고 올라가 그 위의 성모상을 무너뜨리고 알라왔을 수는 없는 일이고, 만일 그 차가 90도로 꺾이지 않고 직접 후진이 되었다면 그 뒤의 집을 덮쳐 크게 다쳤을 텐데 .....

뒤를 돌아 가보니 성모상은 산산이 부서져 있었습니다. 순간 나도 모르게 무엇으로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듯한 진한 아픔과 깨달음이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아! 바로 이것이었구나! 성모님께서 나의 어머니께서 이렇게 자신의 몸을 바쳐 온몸이 부서지고 가루되어 피범벅이 되시어 이 못난 나를 지켜주셨구나. 내가 길을 잃고 방황할 때 외로움과 괴로움으로 몸부림칠 때 어머니께서는 피눈물로 온 몸을 바쳐 나를 보호해 주셨고, 그 자애로운 망토 자락으로 나를 감싸주고 계셨구나. 오, 어머니 마리아님!” 어머니께서는 울부짖는 아이의 음성을 제일 먼저 들어 주셨습니다. 주체할 수 없는 감동으로 성당으로 뛰어 들어가 감실앞에 엎드려 한참을 목놓아 울고 있는데 뒤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려 돌아보니 몇몇 할머니들과 수녀님이 함께 울고 계셨습니다. 저는 결코 혼자 아니었습니다. 내가 몸부림치고 괴로워 하고 있을 때 누군가가 함께 간절히 기도와 희생을 바쳐주고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어머니와 그 곁에 서 있는 사랑하시는 제자를 보시고 먼저 어머니에게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하시고 그 제자에게는 “이분이 네 어머니 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이 때부터 그 제자는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셨다. - 요한 19,26-27-**

그 후로 성모님을 나의 참 어머니로 제 마음의 집에 새롭게 모시고, 성모신심과 성체신심의 중요성을 전파하며 성실히 봉헌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돈 보스코 성인께서는 일찍이 환시를 통해 “우리의 구원인 성체”와 “우리의 도움인 성모”라는 두 기둥으로 교회가 완전하고 안전하게 목적지에 닿을 수 있다고 예견 하셨습니다. 우리들에게 그 어느 때보다 더 성모신심과 성체신심이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도를 통해 저도 메주고리예를 순례할 수 있도록 불러 달라고 부탁드렸더니 갑자기 네 차례나 불러 주시어 은혜로운 여정을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모님을 통한 하느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헤아려 그분들의 뜻을 이루려는 구체적인 삶의 실천일 것입니다. 여러 만남과 관계를 통해 부르시는 그분의 음성을 귀담아 듣고 메시지에 따라 살아가기로 끊임없이 결심하는 삶이 중요합니다. ‘앎’ 이 ‘함’ 으로 실행되어야 합니다.

**내가 전해준 평화의 메시지를 들어온 너희 모두가 그것의 중요성을 깨닫고 너희 삶에서 사랑으로 실현해 주기를 바란다. 메시지에 대하여 말만 늘어놓고 실천하지 않으면서 많은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구나.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의 부정적인 삶을 긍정적일 것으로 변화시키기 바란다. -1991년 5월 메주고리예-**

피조물인 우리 인간들이 감히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화해해야 한다는 말씀은 사람들의 죄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정확하게 지적하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남홍익 그레고리오

## 애물단지

몇세기 동안 이어지고 있는 성모님 발현의 역사를 살펴보면 그때마다 세상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성모님의 발현이 교회의 공식 인정을 받기전까지는 받아들이는 사람들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의 논란이 언제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식으로 인정받은 발현들과 조사가 진행중인 오늘날의 모든 발현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세상사람들이 받아들이든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이 세상을 향하여 성모님을 보내시어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영원히 멸망할 죄에서 하루 빨리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와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이 말씀을 믿고 회개하여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때 천국을 약속 하셨습니다. 성모님을 통하여 전해주시는 이 메시지는 구약의 예언자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신약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과 조금도 틀린 곳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더욱 느끼게 될 뿐입니다. 이 말씀들은 구약과 신약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핵심이자 교회가 만들어진 이유이며 오늘날까지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이 가르침을 예수님의 어머니이신 성모님을 통해서 듣는다고 해서 이상하게 생각할 것은 조금도 없다는 것이 제가 개인적으로 갖고있는 성모님께 대한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 중에서도 성모님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분은 네 어머니입니다.” -요한 19, 26-27-. 하나님께서 이세상을 창조하신 그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을 제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격과 모범을 그리고 우리들에 대한 사랑을 성모님처럼 갖추신 분이 누가 또 있을까요? 오히려 죄에 대한 분별조차 희박해진 이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성모님의 메시지를 듣게 된다는 것은 큰 축복이기에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세상을 구원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사람들의 ‘받아들인다’ ‘못받아들인다’ 는 차원에서 완성되는 것은 결코 아닐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들은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끝없이 죄를 짓는 죄인들로서 하나님을 괴롭게 해드리는 애물단지들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당신의 외아들을 십자가의 제물로 희생 시키면서 까지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생명이시고 진리이시며 영원한 삶으로 갈 수 있는 참된 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만이 하나님의 진실하신 그 뜻이 완성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우리 모두가 꼭 가야만 할 길이기에 우리들의 어머니이신 성모님께서는 -요한 19, 26-27- 그 오랜 세월 동안을 그토록 애타게 호소하시고 눈물까지 흘리시며 당신을 받아들이고 믿어달라고 하시며 당신과 함께 예수님께 가까이 가도록 우리들을 도와주고 싶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흠으로 만들어졌기에 흠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는 한계를 지니고 살아가는 피조물들인 인간이 감히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화해 해야 한다는 말씀은 사람들의 죄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정확하게 지적하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어머니이신 성모님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것도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에 베풀어주시는 배려이심을 믿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듯이 언제까지나 성모님의 발현이 계속되지는 않을것 이기에 이 은총의 시기를 잘 활용해야 한다” 고 하셨던 메주고리에 소식지 창간호때 말씀을 써 주신 김철석 교수의 말씀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라도 한사람이라도 더 성모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뜨거운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믿어서 온 삶으로 실천해 가시는 구원의 축복이 모든 형제 자매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우리 모두 성모님의 특별하신 지향을 위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전하는 도구로써 모든 것을 바치고 싶습니다. 성모님께서는 “나는 너희들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고 하시며 당신을 도와달라고 지금 이시간에도 우리들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나의 응답은 무엇인지 지난 98년 8월 25일 메시지를 묵상하며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나는 너희의 어머니이며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 그리고 너희 한사람 한사람이 구원을 받아 나와함께 천국에서 살게되기를 원하고 있다. 그러므로 나의 어린 자녀들아 너희의 삶이 기도가 될때까지 기도하고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여라.”



## 어머니, 승리들의 어머니

성모님은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발현하시어  
우리들의 회개를 통한 구원을 간절히 호소하고 계십니다.

“성자를 통하지 않고는 성부께 갈 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모 마리아를 도외시하고는 그리스도께 갈 수가 없다.” - 교황 레오 13세 -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는 1987년 3월 25일에 회칙 [구세주의 어머니] (Redemptoris Mater)를 발표하셨습니다. 그 서문에서 보면, 동년 6월 7일(성신강림대축일)부터 이듬해 8월 15일(성모승천대축일)까지를 성모성년으로 설정하고, 그리스도 탄생 3000년대를 맞이함에 있어서 성모 마리아를 되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 고통받는 이들의 위로자이신 성모님

성모님은 신앙과 정의를 위해 고통받는 사람들 옆에 서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 박해자에게도 회개의 은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마음을 쓰십니다. 성모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바라시며 여러 장소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발현하시어 회개를 호소하시고, 괴로워하는 사람과 함께 괴로워하시고, 탄식하는 사람들과 함께 탄식도 하며 눈물을 흘리십니다. ‘성모님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 이십니다.

성모님의 마음은 어느 면으로 보아도 예수님의 마음과 똑 같다고 할만큼 일치해 있으므로 예수님의 마음처럼 부드럽고 온화하며, 연민, 친절, 박애심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인류에 대한 성모님의 사랑은 십자가 밑에서 계셨을 때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는 당신의 아들입니다.”라고 말한 그리스도의 말씀은 성모님의 마음을 꿰뚫고 그리스도교 신자에 대한 모성애를 여기에 쏟아부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모님의 마음은 끊임없이 우리들을 보살피시며 도와주시는 은총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성모님의 마

음은 칼로 찢린 흰 백합이나 빨간 장미를 합쳐 만든 화관을 쓴 모습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성모님의 마음의 훌륭한 성덕을 나타내신 것으로 흰 백합은 한 조각의 더러움도 없는 순결함을 나타내 보이고, 빨간 장미는 그 타오르는 듯한 애덕을 나타내며, 칼을 인류의 속죄를 위해 죽을 정도의 비통함에 가슴이 찢겨진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누구든 마음이 깨끗하고 하느님께 대한 사랑에 불타고 있으면 누구에게 대해서나 친절하여 동정심이 많아지고 자기를 버리고 남을 위해 일하게 되는 법입니다.

“우리들의 피난처인 성모 마리아의 마음으로 피신합니다. 오, 성모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대해서 얼마나 많은 자비로 가득 차 있는지 모릅니다.” - 성 베르나르도 -

### 인류구원에 관계하시는 성모 - 파티마의 예언

포르투갈의 수도 리스본에서 북쪽으로 약 55킬로 떨어진 곳에 있는 파티마는 성모님의 발현으로 세계에 널리 알려진 (성모)발현 순례지가 되었습니다.

1917년 이른 봄, 성모 마리아께서 파티마의 세 목동 즉, 루치아(9세)와 그 사촌 동생 프란치스코(8세), 히아친타(6세)에게 나타나 중대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는 세가지 예언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첫번째 예언은, 발현 당시에도 계속되고 있던 제1차 세계대전의 종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즉, “전쟁은 얼마뒤에 끝난다.” 하셨는데 실제로 이듬해 11월, 4년만에 종결되었습니다.

두번째 예언은,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과 핵무기의 발명 및 소련의 위협이었습니다. 즉, “하느님을 거역하는 행동을 중지하지 않는다면 훨씬 더 큰 불행이 일어날 것이다.

밤에 원인모를 빛으로 밝아지는 것을 보게 될 때, 그것이 전쟁의 시작이며 하느님께서 전쟁과 기아로써 세상을 곧 벌하시려는 것을 보여 주시는 표시로 알아라.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나의 원죄없는 성심께 러시아를 봉헌하고, 매달 첫 토요일에 보속으로 영성체를 하도록 부탁한다. 나의 부탁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실천하면 러시아에는 회개와 평화가 올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오류가 세상에 퍼져서 교회를 거슬러 박해와 전쟁을 일으킬 것이다.” 라는 예언입니다. 이 예언대로 1938년 1월 26일 태양의 이상 현상이 서구 전역에 걸쳐서 확인되었습니다. 즉 그 이듬해에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된 것입니다.

이상 두 가지 예언 이외에 성모님이 예고한 또 하나의 예언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이른바 “파티마의 제3의 비밀” 이라고 일컬어지는 것으로, 제3차 세계대전의 발발과 세계의 종말에 대한 예언이라고 이야기 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모님의 발현을 목격한 세 명의 목동 가운데 루치아는 현재까지도 생존해 있으며, 포르투갈 코임브라에 있는 성녀 데레사 수녀원에서 수도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3의 비밀” 을 문서로 만들어 봉인한 다음, “내가 죽기 전이나, 1960년 이전까지 개봉하지 말 것” 을 조건으로 당시의 교황 비오 12세에게 전달 하였습니다. 이 교황은 1959년에 사망했기 때문에 그 문서는 개봉되지 않았습니다. 그 후임자인 요한 23세가 그 문서를 읽었을 테지만, 그 내용에 관해서는 일체 공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교황인 바오로 6세는 1967년에 파티마 성모님 발현 50주년을 맞이하여 파티마를 순례하며 루치아 수녀와도 직접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따라서 제 3의 비밀을 알고 있을 것이지만 공표는 하지 않았습니다.

요한 바오로 2세도 성모님 발현 65주년 기념일인 1982년 5월 13일에 파티마를 순례하여 동서 세력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전세계를 성모님의 티없는 마음에 봉헌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 전날 밤에 갈멜회의 코임브라의 수녀원에서 루치아 도스 산토스 수녀(당시 75세)와 면담하여 제3의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세계 종말에 대해서는 성서 속에 이미 충분히 그 내용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세계 종말은 반드시 찾아오겠지만 그것이 언제인지는 천사도, 그리스도 자신도 모른다고 써여 있습니다. 이 세계 종말은 새로운 세계로의 출발이고, 절망이나 불안올 가져다 주기보다는 희망을 가져다

(8) MEDJUGORJE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파티마의 성모님 발현에 대한 정식 조사는 1922년 5월에 시작되었습니다. 7명의 학식과 덕망이 높은 위원들은 상세하고 신중하게 7년의 세월을 들여 조사를 한 후 1929년 4월에 31장으로 이루어진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레이야르의 요셉 A.D. 실바 주교는 이것을 또 다시 6개월에 걸쳐 면밀히 조사한 다음, 1930년 10월 13일 성모님 발현 후 13년 만에 ‘파티마의 성모님 공경에 관한 교서’ 를 가지고 발현한 사실을 공인했던 것입니다. 한편 당시의 교황 비오 11세는, 이미 같은 해 10월 1일에 파티마의 정식 서류를 직접 읽고 순



레자에게 특별 은사를 내려 주었습니다.

요한 바오로 2세께서는 지난 2000년 6월에 파티마의 제 3의 비밀을 공개 하셨습니다.

### 루르드의 성모님 - 기념일 2월 11일 -

프랑스의 루르드에 발현한 성모 마리아는 1858년 3월 25일, 소녀 벨라뎃다에게 “나는 원죄없이 잉태된 자이다.”라고 말하여 앞에서 말한 교의를 보증했습니다. 신학에 대한 지식도 전혀 없는 14세의 이 소녀가 이상한 빛에 싸여 발현한 귀부인에게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고 묻자, 그 귀부인은 양손을 모아 그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교구의 주교와 루르드의 본당 신부도 이 발현에 대해서는 소극적이었을 뿐만아니라 오히려 적의까지 나타냈습니다. 경찰은 소녀의 부친을 협박하고 벨라뎃다를 죄인처럼 다루었습니다. 그러나 교구 주교는 여론에 밀려서 신학자, 과학자, 의학자 들로 구성된 조사 위원회를 조직하여 3년 이상 이 사건을 정밀하게 조사시켰습니다. 그 결과 벨라뎃다는 성실하고 명석한 판단력을 지니고 있으며 부, 명예, 쾌락에 대해서는 아무 욕심도 없고 성격적으로 조금도 이상한 점이 없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성모님이 벨라뎃다에게 지시한 곳을 파 보았더니 그곳에서 맑은 물이 솟아나와 많은 병자를 고쳤는데, 그 물은 마을의 우물물과 동질이었으나 의학의 한계를 초월한 초자연적인 효력이 있다는 것이 실증 되었습니다. 더욱이, 노벨상을 수상한 의학자 알렉시스 카렐은 1903년 루르드에서 자신과 다른 의사가 포기한 소녀의 복막염이 조기에 회복된 것을 확인하고는 기적 따위는 있을리가 없다고 하는 선입관이 이 사실 앞에서 단번에 무너졌다고 ‘루르드의 여행’ 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1889년에는 성모님의 희망대로 발현이 있었던 동굴 옆에 로사리오 성당이 세워졌는데, 지금까지도 기적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발현 장소는 순례자로 붐비고, 그곳에는 심신의 병을 고치려고 하는 사람들과 좋은 소식을 들으려는 마음이 가나한 사람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단 순히 그리스도교 신자에 머무르지 않고 회교도, 불교도, 무종교자 등도 순례를 함께하며 살아있는 형제애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한편, 벨라뎃다는 1866년 22세 때 누베르 애덕회에 입회하여 끊임없이 순명, 극기, 겸손, 인내, 이웃사랑을 실천하다가 35세로 이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1933년 12월 8일에 성인 대열에 올랐으며, 그 유해는 백년 이상이나 지난 현재에도 기적으로 부패하지 않고 누베르 수녀원의 성당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루르드의 성모님 발현이 공인된 계기가 된 것은 루르드 지역을 관리하는 타르브 주교가 1858년(발현의 해) 7월 28일자로 조사위원회를 발족시켜 성모발현 사건의 해명에 착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3년여에 걸친 세밀한 조사 결과 타르브 주교는 1862년 1월 18일 “천주의 모친, 원죄없으신 성모 마리아가 맛사비엘의 동굴에서 벨라뎃다에게 18회에 걸쳐서 발현하신 것을 확실한 사실로 신자들이 믿는 것은 정당하다.”라고 판결하여 루르드의 성모 발현을 공인했습니다.

### 기적의 메달

파리의 중심가인 루드바크 거리 140번지액 성 빈첸시오의 애덕 자매회 본원이 있습니다. 1830년 성모님은 이 본원의 성당에서 카타리나 라브레 수녀에게 발현 하셨습니다. 그 때 성모님은 베일을 좌우로 발까지 늘어뜨리고 지구 위에 발을 올려놓고 계셨으며, 열 손가락에는 보옥의 반지를 끼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반지에서 이상한 빛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성모님의 설명에 의하면 “이 지구는 전세계 사람들을 나타내고, 보옥에서 발하는 빛은 은총의 표시로서 나를 통하여 부탁하는 자에게 은총을 비처럼 내리겠다.”라고 하는 의미였습니다.

또 성모님의 모습 전체가 다음과 같은 금문자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무염시태이신 마리아여, 당신을 통하여 부탁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소서.” 그리고 금문자의 원 뒷쪽에 ‘마리아’의 머리 글자인 ‘M’이 나타나고, 그 가까이 십자가와 밑에는 그리스도와 성모님의 성심이 나란히 있었으며 전체를 둘러싸고 성모님의 특

권을 나타내는 12개의 별이 박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모님은 카타리나 수녀에게 “이와 같은 모양대로 메달을 만들어라.”라고 권하셨습니다. 그래서 1832년부터 메달이 제작되어 전세계에 보급되었고, 수많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소문을 들은 파리의 대주교

MEDJUGORJE (9)



드 랑케는 공식적으로 조사를 한 뒤 교황청에 보고했습니다. 이에 교황 그레고리오 16세는 1836년에 성모님 발현이 사실임을 확인하였습니다. 한편 ‘지구의 성모상’ 이라고 일컬어지는 발현은 성녀 카타리나 라브레가 죽고 나서 레오 13세 교황때 공인되었습니다. 성 빈첸시오의 애덕자매회 본원의 문을 들어서면 바로 좌측에 성녀 카타리나 라브레와 성모 마리아의 상이 서 있습니다.

성당 내의 정면을 향해 우측에 성카타리나 라브레의 유해가 유리관속에 안치되어 있고, 그 앞쪽에 성모 마리아가 성녀 라브레와 얘기할 때 앉았다고 전해지는 의자가 놓여져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이 이상한 메달을 목에 건 한 광산 기사가 폐갱(閉坑)에서 기적적으로 살아 돌아왔습니다. 홋카이도의 시코츠 호수에서 8킬로미터 가량 안쪽으로 들어간 곳에 있는 폐갱의 수평 갱도를 탐사해보려고 그는 혼자서 그곳에 들어갔습니다. 3킬로미터 가량 들어가자 천장에서 떨어지는 빗물과 같은 샘솟는 물이 심해졌습니다. 그 때 소중한 손전등이 돌연 꺼져버렸습니다. 암흑 속에서 황급히 성냥 불을 켜으나 불이 켜지지를 않았습니다. 별수없이 선로를 따라 걷기 시작했으나 갱목과 돌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레일을 더듬으며 엉금 엉금 기어서 2킬로미터 가량 갔더니 교차로가 나왔습니다. 어느 쪽으로 가야 갱도 밖으로 갈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지쳐서 선로 위에 누웠습니다. 그 순간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이 목덜미에 섬뜩하게 떨어졌습니다. 깜짝 놀라 손을 뻗으니 우연히 목에 걸고있는 메달 끝이 손에 닿아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목에서 벗어나서 좌우로 흔들다가 자동적으로 맞아 떨어진 선로를 성모님이 가르쳐 준 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엉금엉금 기어서 정신없이 전진했습니다. 한 시간 가량 지났을 때 앞쪽에서 희미하게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갱구다! 빛이다!” 하고 소리치면서 흘러넘치는 눈물이 뺨을 적셨다고 합니다. 그 기사는 지금도 갱내에서 살아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이상한 메달에 의한 성모 마리아의 은총 덕택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 스페인의 가라반달에서 발현하신 성모

1961년 스페인 북부에 있는 가라반달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11세와 12세의 소녀 4명에게 성모님이 나타나셔서 특히 성직자의 쇠신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많은 희생과 속죄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

나 그것보다 먼저 착한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안된다. 너희들의 어머니인 나는 성 미카엘을 통해서 회개를 권하니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하거라. 나는 너희들의 소망을 들어 주겠다. ....” 성모님이 권하는 기도란 미사 성제에 참여할 것, 영성체를 할 것, 성체조배를 할 것, 로사리오(목주신공)를 바칠 것, 예수님의 수난을 묵상할 것, 스카플라를 몸에 지닐 것 등입니다. 이 메시지는 발현을 보게된 소녀 콘치타가 성모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한편 “희생을 위해서는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성모님께 물었더니, 성모님은 “순명하거라, 인내하거라, ..... 이 괴로움과 고뇌를 전세계 죄의 속죄와 특히 사제들의 속죄를 위해 바치기를 하느님께서 바라라고 계신다.” 하고 말씀 하셨습니다.

### 유고의 메주고리에 마을에서 발현



유고는 본래 가톨릭 국가였으나 제 2차 세계대전 후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 국가에 편입되어 많은 종교 박해의 수난을 겪은 나라입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여러 어려움 중에서도 변함없이 믿음을 지켜왔으며, 특별히 성모님을 공경해 왔습니다.

성모님께서서는 1981년 6월 24일 저녁에 처음 발현하셨으나 아무 말씀도 없으셨고, 이튿날인 6월 25일, 전날 발현

을 목격했던 세 소녀와 두 명의 소년 이반 드라기케비치와 야콥 출로, 또 한 소녀 마리아 파블로비치를 더한 여섯 명이 전날 ‘발현’이 있었던 장소에 알 수 없는 강한 힘에 이끌려 거의 같은 시간에 찾아왔습니다. ‘성모님 발현’의 소문은 조그만 마을 전체에 퍼져서 신앙이 두터운 어른들도 그 뒤를 따라왔습니다. 그러자 200미터 앞쪽의 언덕 위에서 아름다운 빛에싸여 아기를 안고있는 귀부인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섯 명의 아이들에게만 보였던 것입니다. 다음 날도 소년과 소녀들은 같은 시각에 같은 장소로 갔습니다. 그들 뒤에는 전날보다도 훨씬 많은 사람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그러나 역시 ‘발현’은 소년, 소녀들에게만 보였습니다. 그때 비스카가 성모님이라고 생각되는 부인에게 성수를 뿌렸습니다. 그것을 권한것은 그 소녀의 할머니였습니다. 그 할머니 생각으로는 발현한 것이 악마든가, 그 힘에 의한 것이라면 성수로 쫓아 버릴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발현’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었기 때문에 소년 소녀들은 실제로 보고 있는 것이 ‘성모님’이 틀림없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소녀는 할머니가 시키는 대로 ‘발현자’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축복받은 동정녀 마리아다.” “왜 이곳에 나타나셨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수백년 동안 하느님께 충실하게 살아왔다. 그 사람들에게 하느님께서서는 특별한 축복을 내려 주시는 것이다. 나는 너희들이 나와 함께 해주기를 바라라고 있다”

고 하셨습니다. 또 이 발현은 이 지방 사람들을 위해서 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하느님께로 돌아와 하느님과 화해를 하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성모님은 말하셨습니다.

이튿날인 27일 이 소문은 경찰과 관청에까지 알려졌습니다. 유고는 전 후 공산권에 속해있어서 관리도 경찰관도 공산당원이고 무신론자 였습니다. 관리들은 여섯 명의 소

년, 소녀에게 전문의사의 진찰을 받게 했습니다. 그 결과 육체적, 정신적으로 전혀 이상을 찾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여섯 명의 아이들은 관리에게서 풀려나자 그 길로 '발현' 장소로 가서 네 번째 발현을 보았습니다.

그 뒤에도 발현은 매일 계속되어 가까운 마을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섯 명의 소년, 소녀들 이외에 그 '발현' 을 목격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른들이 이 소년, 소녀들을 마을 성당의 주임사제인 요조 신부에게 데리고 가서 신부의 질문에 대답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요조 신부는 소년, 소녀들이 얘기를 믿지않았고 귀찮아 하고 있었습니다. 여섯 명에게 얘기를 한 성모님의 메시지는 요컨대, 현대세계와 인간에게 회개와 기도와 단식을 권하여 평화를 쌓아 올리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음날 오후 요조 신부는 성당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신부의 마음에 "내 아이들을 지켜주어라!" 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신부는 강한 충동을 받고 일어나서 성당을 나가려고 하니 그곳에 여섯명의 아이들이 숨을 헐떡이며 달려 들어왔습니다. 경찰관에게 쫓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신부는 아이들을 사제관에 숨겨 주고 경찰관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때서야 "나의 아이들을 지켜 주어라!" 하는 말의 의미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경찰과 관청은 사람들이 '발현' 의 언덕 부근에 모이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그후 소년, 소녀와 신자들은 요조신부의 권유로 성당에 모여 로사리오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사 전에 성모님을 찬미하는 기도가 시작되자, 여섯 명의 소년 소녀들은 제의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그곳에서 성모님의 발현이 매일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때부터 메주고리에 본당에서는 매일 저녁미사가 시작되었고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몇 주일 후, 요조 신부는 경찰에 체포당해 구속되었습니다. 불온한 소문으로 사람들을 선동하고 사회 질서를 문란하게 했다는 혐의였습니다.

성모님의 발현은 1981년 이래 2001년인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1981년 8월 2일 부터 4일에 걸쳐서 태양의 빛이 다른 때와는 달랐으며, 같은 해 10월 28일에는 '발현' 의 언덕위에 불이 타오르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소방차가 달려가 보았으나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 땅을 찾는 순례자는 날이 갈수록 증가하여 유고 국내는 물론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북남미 등에서도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눈이나 귀의 장



에, 류마티스, 신경통 등이 치유되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외적 내적 치유가 메주고리에 본당에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 온세계를 병들게 하고 있는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을 오직 기도와 노동 그리고 봉사를 통하여 완전히 치유시키는 시나콜로라는 단체가 이태리의 엘비라 수녀를 통하여 메주고리에 만들어져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특히 젊은이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 평화의 오아시스라는 수도단체가 생겨서 이세상의 죄인들과 회개하는 이들을 위하여 대신 보속하고 기도하며 희생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세상에 또다른 희망의 빛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요조 신부님은 끊임없는 전쟁으로 부모를 잃고 방황하는 불쌍한 전쟁 고아들을 모아서 교육시키며 올바른 가치관을 갖고 자라도록 그들을 돌보는 사명을 받고 그 일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4천 2백여명의 고아들을 돌보고 있으며 고아들과 순례자들을 대부 대모의 관계로 엮어서 일대 일로 돌보도록 하고 있는데, 한 아이당 매달 약 50달러 정도의 후원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특히 이 모든 일들이 오로지 현금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날 그날을 성모님의 보살핌에 의탁하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데 날이 갈수록 이 모든 단체에 지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좋은 결과를 많이 만들어 가고 있으며 전세계의 모든 사람들은 이같은 결과를 ‘메주고리에 성모님의 열매’라고 부르며 끊임없는 도움을 주고있는 것입니다.

메주고리에 성모님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육간의 필요한 것을 도우십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시며 당신을 도와달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죄의 분별까지도 희박해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영혼들이 더이상 지옥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와 희생과 보속으로 함께 동참해 달라고 간절히 호소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죄와 싸우기 위해서 우리들 모두에게 주신 다섯가지의 무기가 있습니다. (정성을 다해 드리는 묵주기도, 영성체, 성서, 단식, 매달 고백성사)

우리 모두는 이것을 우리들의 삶에 깊이 받아들여서 나만이 아니라 이웃들까지도 하느님께 돌아와야 한다는 성모님의 메시지를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 갈멜산의 성모

1251년 7월 16일 성모님은 갈색의 스카플라(어깨에 걸치는 옷)를 손에 들고 영국 출신인 성 시몬 스토크(갈멜 수도회의 제 6대 총장)에게 나타나 이렇게 약속 하셨습니다. “이 스카플라를 받거라. 너에게도 갈멜 회원 전원에게도 이것은 특전의 징표, 구원의 징표, 위험할 때의 보호이며, 평화와 영원한 약속의 보증이다.....”

이 스카플라는 후에 일반 신자도 스카플라의 신심회에 입회함으로써 착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것을 입은 사람에게 갈멜 회원과 같은 특전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교회의 전례에서는 7월 16일에 갈멜 산의 성모님이 기념되고 있습니다.

이 이름의 유래는 이스라엘의 북서쪽에 있는 갈멜산입니다. 갈멜산은 높이 552 미터로 지중해를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기원 전 9세기에 예언자 엘리야나 그 제자 엘리사도 즐겨 이 산상을 기도의 장소로 삼았습니다. 또 이들을 따르는 제자들은 대대로 갈멜산에서 살면서 이곳에서 수행하고 있었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듣고 이것을 받아들여 개종해서 그리스도교 신자가 되었습니다. 이 산의 ‘은수자의 골짜기’라고 불리우는 곳에는 570년 경에

수도원이 세워졌습니다. 십자군 시대에도 그리스도교 신자 은둔자들이 갈멜산의 여러 동굴에 들어가서 성모님과 예언자 엘리야를 공경하고 따르면서 기도에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한 무리가 13세기에 갈멜 수도회가 된 것입니다.

어쨌든 하느님은 눈에 보이는 교회나 징표와 성사를 통해서 당신과의 만남을 깊이 하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갈멜산 성모님의 스카플라는 보이는 성사는 아니더라도 로사리오와 마찬가지로 이것을 통해서 하느님과의 만남을 강화시켜 주십니다. 분명히 이 스카플라는 성모님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친밀한 만남으로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현재의 착의식은 레오 13세 교황에 의해서 공인되었습니다.

## 벨기에의 반느 마을에 발현

벨기에의 독일 국경에 가까운 후미진 마을(리에주의 남동쪽 약 20킬로)에 반느라는 곳이 있습니다. 반느는 ‘추방된 자’라는 의미인데 실제로 이 마을은 이곳 저곳에서 추방당한 사람들이 모여서 형성되었습니다. 성모님의 발현이 있었던 1930년 1월 15일 제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기 전에 이 마을의 마리에타라는 소녀에게 성모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날 저녁 무렵, 이 소녀는 집에 늦게 돌아오는 동생이 걱정이 되어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돌연 어머니를 부르며 “엄마, 뜰에 웬 여자가 서 있어요!” 하고 소리쳤습니다. 마리에타가 본 것은 젊은 여인의 찬란하게 빛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뜰의 바닥에서 30센티 가량 위에 떠 있는 구름모양의 물체 위에서 있었습니다. 양손을 모으고 머리를 약간 왼쪽으로 기울이고 부드럽게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에게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뒤의 밤, 이 소녀는 “뜰로 나오너라” 하는 재촉의 소리를 듣고 추운 뜰로 나갔습니다. 이것을 알아차린 신앙이 없는 부친은 걱정이 되어 딸의 뒤를 따라 나갔습니다. 소녀는 무릎을 꿇고 뭔가 열심히 기도하며 뚫어져라고 한 곳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성모님으로 생각되는 젊은 여인은 지상에서 30센티 가량 떠 있었으며 소녀를 손짓하며 뒷걸음질쳐 갔습니다.

소녀는 그것을 따르고 부친도 뒤따라 갔습니다. 물론 부친의 눈에는 성모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윽고 개울가에서 여인은 멈춰 서고 소녀에게 개울물 속에 손을 담그라고 말했습니다. 소녀가 시키는 대로 하자 성모님은

“이 개울은 나를 위한 것이다. 그럼 안녕!” 하고 모습을 감췄습니다. 소녀도 “안녕히 가세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부친은 딸의 목소리 밖에는 듣지 못했지만 깊이 감동하여 곧바로 교회로 가서 이 사건 전모를 주임사제에게 얘기한 후 “나도 내일 고해성사를 보고 영성체를 하겠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이튿날인 1월 19일 밤, 마리에타는 또다시 그 개울가에서 ‘발현’을 목격했습니다. 이때 소녀가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고 질문을 하자, 그 여인은 “나는 가난한 사람들의 동정녀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어제 당신이 ‘이 개울은 나를 위한 것’ 이라고 말한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고 소녀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개울은 나를 위한 것이고, 또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 특히 병자들을 위한 것이다. 나는 병자를 위로하기 위해 왔다.” 하고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10년 후인 1943년 이 반느의 개울 옆에 성당이 세워지고 리에주의 주교로부터 축성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성모 공경의 장소로 공인되어 있습니다.

한편, 이곳 개울에 몸을 담근 많은 병자가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얼마 뒤 이 근처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성모 병원’ 과 ‘학교’ 가 세워졌습니다. 또 신심이 깊은 많은 사람들의 요청에 따라 ‘국제 기도 신심회’ 가 결성 되었습니다. 이 회원은 매일 자기 집에서 혹은 가까운 성당에서 특히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성모님의 중재를 기도하는 것이 의무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교회 당국은 이 발현에 대해서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가톨릭계 신문이나 성직자에게 발현에 대해서 침묵을 지키도록 주의하면서도 동시에 의사와 신학자에 의한 조사 위원회를 구성하여 성모 발현에 대해서 면밀한 조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오랫동안 조사 결과, 1942년에 리에주의 주교는 반느의 성모님에 대한 특별한 공경을 공인하고, 더 나아가 1949년에 이 발현은 초자연적 현상이며 사실이므로 믿어도 좋다는 최종 인가를 내렸습니다.

### 아키다의 성모님상에서 눈물

아키다의 ‘성체봉사회’ 성당 안의 성모상에서 눈물이 흘러 내렸습니다. 이것은 신장 약 70센타의 목각상으로 암스테르담에 발현한 성모님을 모방해서 전문 조각가의 손으로 제작된 것입니다. 그 성모상의 눈에서 인간의 눈물처럼 물이 흘러나오거나 또는 손에서 피가 흐르거나 향기가 좋은 땀 같은 것이 흐르는 등의 이상한 현상은 1975년 1월 4일부터 시작하여 1981년 9월 15일 슬픔의 성모 축일까지 101회나 일어났습니다.

이 눈물과 같은 물을 탈지면에 묻혀서 아키다 대학의 법의학 교수에게 감정을 의뢰했더니, 이 물은 인간의 체액이라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모님의 중재에 의해서 암이나 귀머거리가 나았습니다.

어떤 한국 여성이 1981년 7월에 뇌암에 걸려 식물인간이 되었습니다. 그때 한국 신부와 여성들은 한국 순교자의 열성을 위한 기적을 찾아 아키다의 성모님께 이 부인의 건강 회복을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여성에게 아키

다의 성모님상이 나타나서 누워있을 필요가 없다고 말

한 얼마 뒤 완전히 암이 치유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신비한 일은 ‘성체봉사회’ 의 사사

카와 가츠코 부인의 몸에 일어났습니다.

사사카와 부인은 1931년에 니이가다 현에서 태어나 처녀 시절에 맹장 수술을 받았을 때 마취의 실패로 지체마비의 상태에서 오랫동안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25세때 세례를 받고 루르드의 물을 통해 성모님의 중재로 회복되었습니다. 그 뒤는 보다카 고원 교회에서 교리 교사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73년 3월 16일 42세때 돌연 귀가 들리지 않게되고 게다가 손바닥에 상처를 입었



는데, 같은 해 5월부터 아키다의 ‘성체봉사회’에 입회하여 오늘날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중에 귀도 완쾌되었는데 그 이전에 성모님으로부터 사사카와 부인에게 세 번의 메시지가 전달되었습니다.

최초의 메시지는 1973년 6월 6일 금요일 아침의 일이었습니다. “나의 딸이여, 나의 수련녀여, 너는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라 주었다. 귀가 들리지 않아 몹시 괴롭겠구나. 틀림없이 나올 것이니 인내하거라. 인간의 회개를 위하여 보속하고 기도해 주어라 .....”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같은 해 8월 3일에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위로하는 사람을 바라고 있다. 하늘에게 신 아버지의 노여움을 풀어 드리기 위해 죄인이나 은혜를 저버린 자를 대신해서 괴로워 하고 가난함 속에서 이것을 속죄할 영혼을 성자와 함께 원하고 있다.... 나의 아들은 십자가의 고통, 성혈을 흘리며 ... 재난을 막아왔다. 기도와 고행, 가난함, 용기있는 희생적 행동은 아버지의 노여움을 풀어 드릴 수가 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이며, 마지막 메시지는 같은 해 10월 13일 전과 마찬가지로 성모님상에서 들려 왔다고 합니다. “....다시 또 말하지만 만일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전인류에게 커다란 벌을 내리실 것이다. 그때 하느님께서는 대홍수 보다도 더 무서운 지금까지는 볼 수 없었던 벌을 내리실 것이 틀림없다. 그때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그 재난에 의해서 인류의 대부분은 죽고 사제도 신자도 죽을 것이다. 살아 남은 사람들은 죽은 사람을 부러워할 정도의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때 우리들에게 남는 무기는 로사리오와 예수님께서 남기신 징표 뿐이다. 매일 로사리오의 기도로 주교와 사제를 위해 기도해 주어라. 악마의 활동은 교회 안까지 들어가서 추기경은 추기경과 주교는 주교와 대립할 것이다. 나를 공경하는 사제는 동료로부터 경멸당하고 공격을 당할 것이다. 제단이나 교회가 약탈당하고 교회는 타협하는 자로 가득 차고 악마의 유혹에 의해서 많은 사제와 수도자가 성직을 떠날 것이다. 특히 악마는 아버지께 바쳐진 영혼을 방해하고있다. 많은 영혼을 잃게 되는 것이 바로 나의 슬픔이다. 더이상 죄가 계속된다면 앞으로 죄의 용서는 없어질 것이다.”

귀머거리인 사사카와 부인에게 이상의 메시지가 들리는 것만도 이상한 일이지만 최초의 메시지 속에서 “귀의 부자유는 괴롭겠구나? 틀림없이 나올 것이니 인내하거

라.” 라는 약속이 있는 뒤 9년만에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귀병이 낫기 조금 전인 3월 25일과 5월 1일에 천사로부터 사사카와 부인에게 다음과 같은 예언이 있었습니다.

“귀의 부자유는 괴롭겠지요. 당신에게 약속했던 치유의 때가 다가왔습니다. 동정녀이시고 무염시태의 성스러운 분의 중재에 의해서 성체 안에 진실로 존재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그분에 의해서 귀는 완전히 치유되고 지극히 높은 신분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때묻지 않은 성모님의 마음에 바쳐진 달에 행해질 것입니다.”

그 말대로 성모성월 최후의 일요일 즉, 1982년 5월 30일의 성신강림 주일의 오후 성체조배 때 완전히 치유되었습니다.

당시의 니이가다 교구장인 이토 주교는 1984년 4월 22일의 부활절에 공표한 [아키다의 성모상에 관한 주교 서한] 속에서 “아키다 시의 성체봉사회의 성모상에 관한 일련의 불가사의한 현상에 초자연성이 없다고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또 신앙과 도덕에 반하는 것을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로마 성좌로부터 최종 판시가 제시될때까지 본 교구 내에서 아키다의 성모상에 대해서 공경을 나타내는 것을 금하지 않습니다.” 라고 발표 했습니다.

### 암스테르담과 벨기에의 보랭 마을에서 발현

1945년부터 1959년까지 네델란드의 수도인 암스테르담에서 성모님은 ‘만인의 성모’로서 아이다 페르데만이라는 중년 여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 성모님은 1951년 5월 31일의 발현 때는 십자가 앞에서 스스로를 ‘공속자’라고 칭하여 교회의 전통적인 가르침을 확인했습니다. 이 성모님의 모습을 모방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키다의 목각 성모상입니다. 이 목각의 성모상은 십자가 앞에 서있는 것으로 ‘공속자’로서의 이미지에 꼭 들어맞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벨기에 남부의 나무르 지방의 주요 도시 디낭의 남쪽으로 20킬로 떨어진 지점에 보랭 마을이 있습니다. 이 마을의 중앙에는 고성 있으며 주위에는 울창한 숲이 우거져 있습니다. 1932년 11월 29일부터 이듬해 1월 3일에 걸쳐 이곳에서 성모님이 32회나 다섯 명의 소년 소녀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성모님은 찬란하게 빛나는 황금색 관을 쓰시고 흰 옷을 입고 큰 길의 다리 위와 여자 수도원의 뜰에 있는 산사나

무 위에 나타나셔서 양팔을 벌리시고 아이들에게 부드럽게 미소를 지어 보이셨습니다. 함께 가던 어른들에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으나, 아이들은 산사나무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아아, 저곳에 계신다.” 하고 소리치며 제각기 “아베 마리아!” 를 외쳤습니다.

또 다른 날 아이들과 그 부모들, 그밖에 몇 사람의 어른들도 함께 밤 8시경에 그 여자 수도원 뜰의 산사나무 앞에서 성모님의 발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모님은 아이들의 눈에만 보이셨습니다.

알베르토라는 소년이 “당신은 원죄없으신 동정녀 이십니까?” 하고 묻자, 성모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알베르토는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성모님은 처음으로 입을 여시고 “착한 아이로 있어라.” 하고 권했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예” 하고 대답했습니다.

12월 8일 성모의 무염시태 축일에는 1만여 명의 군중이 발현 현장 주변에 모여들었으나 성모님의 우아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본 것은 그 아이들 뿐이었습니다.

또 다른 발현 때, 아이들이 성모님께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고 묻자, 성모님은 “작은 성당을 ...” 하고 한마디 하셨습니다.

또 발현이 계속될수록 성모님은 “나는 죄인을 회개시킨다.” 라든가 “나는 하느님의 어머니, 하늘의 여왕이다, 기도하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상의 발현에서도 성모님의 ‘원죄 없으심’ 과 죄를 씻어준다는, 혹은 죄인을 회개 시키신다는 것이 밀접하게 서로 관련해 있다는 것이 강조되고 있는 것처럼 생각됩니다. 그 후에 발현 장소에는 성모님의 희망대로 성당이 세워졌습니다. 또

나무르의 주교는 전문가의 협력을 얻어 성모님의 발현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 멕시코 과달루페의 성모

멕시코에는 ‘과달루페의 성모’ 라는 유명한 성모님의 순례지가 있습니다. 크르테스가 스페인 군대를 이끌고 아즈테카의 수도를 함락한 1521년 부터 10년 쯤 지난 1531년 12월 9일 새벽이었습니다. 후앙 디에고라는 중년의 아즈테카인이 그가 살고있는 테노치토란 마을에서 수도로 향하는 도중, 테페이야카크라는 언덕 위에서 성모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성모님의 발현을 받은 후앙 디에고는 테노치티토란 트라야키크라는 곳에서 1474년에 태어났습니다. 스페인에 의한 멕시코 정복 후 1525년경에 가톨릭의 세례를 받고 후앙 디에고라는 본명을 받았습니다. 개종 전부터 신앙심이 깊어 혼자있기를 좋아하던 그는 기도와 묵상을 열심히 하면서 자작농에 종사하며 자신이 살고 있던 테노치티토란 마을에서 3시간 반 정도 걸어 수도에 까지 가서 요리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후앙 디에고가 성모님의 발현을 본 것은 그의 나이 57세 때 였습니다.

첫번째 발현은 1531년 12월 9일 새벽이었습니다. 후앙 디에고가 테페이야카크 언덕을 지나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정상에 다다랐을 즈음 그곳에 성스러운 모습의 부인께서 있었는데 “주교한테 가서 나를 위해 성당을 세워달라는 말을 전하여라.” 하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발현은 12월 10일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후앙은 언덕위의 성모님에게 주교가 뭔가 증거를 가져오라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성모님은 후앙에게 “증거를 줄테니까 내일 오도록 하여라.” 하고 대답했으나 후앙은 큰아버지 후앙 베르나르디노가 병에 걸려 위급했기 때문에 가지 못했습니다.

네 번째 발현은 12월 12일 새벽에 있었습니다. 후앙은 큰 아버지의 임종에 도착할 수 있도록 수도회에서 신부를 불러오려고 길을 서둘렀습니다. 성모님을 만나면 늦어질테니까 될 수 있는대로 만나지 않으려고 문제의 언덕을 피해서 걸어갔습니다. 그러자 언덕 위에서 성모님이 내려와서 후앙을 보고 “큰 아버지의 병은 벌써 나왔다. 언덕 위에 올라가 꽃을 따가지고 그것을 증거로 주교에게 가져가도록 하여라.” 하고 명했습니다. 12월 이니까 꽃이 있을 리 없는데 언덕 위에는 꽃이 있었습니다. 후앙은 그 꽃을 따서 망토에 싸가지고 그날 점심때 쯤 주교에게 내밀



(16) MEDJUGORJE



자, 주교는 깜짝 놀라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망토 위에 성모님 상이 나타나 있었습니다. 주교는 그 망토를 증거로 받아 성당에 놓았습니다.

테피이야카크의 언덕에서 후앙이 성모님과 얘기하고 있었던 같은 시각에 성모님은 다른 곳에서 다섯 번째 발현을 하셨습니다. 후앙 디에고의 큰아버지는 테느치티토란 마을의 자택에서 성모님의 발현을 받고 병이 나았던 것입니다. 그 후 테피이야카크 언덕에는 ‘성모 성당’ 이 세워지고, 그 옆에서 성모의 목격자 두 사람은 성당지기로 살았습니다.

후앙 디에고는 1548년에 75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후앙 디에고가 입고 있던 망토는 오늘 날까지 전해져 내려와 성당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길이가 약 2미터 가량이고 폭이 1미터 가량의 커다란 쇼울로 마케이라는 사보텐 실로 짠 것인데, 삼베식으로 결이 거칠어 그 위에 그림을 그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한 천은 보통 40년 정도면 부식되고 만다고 하는데 약 4백 70년이 지난 오늘도 잘 보관되어 있으며 그 그림을 여러 기관에서 조사해 보았으나 그림에 쓰여진 물감의 물질을 밝힐 수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합니다.

그 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1979년 1월 26일부터 27일에 걸쳐서 멕시코를 방문했을 때, 과달루페의 성모 성당을 순례하고 미사를 올렸는데 그 성당 앞의 대광장에 모인 군중에게도 확성기를 통해서 성모찬가라고도 할 수 있는 강론을 했습니다. 그 한 구절에 “평화의 모후여, 이 대륙 전체에 퍼져있는 여러 나라와 그 백성들을 구해 주소서. 그것을 당신께 맡기나이다. 전쟁, 증오, 파멸로부터 구해주소서.” 하며 과달루페 성모님께 멕시코와 모든 인류 특히 낙태되는 어린이들의 보호를 청했습니다.

### 이탈리아의 산다미아노에서 발현

1970년 5월 31일, ‘성모 방문’ 축일에 북이탈리아의

밀라노 남쪽에 있는 도시 피아첸차로부터 다시 남쪽으로 20킬로 가량 떨어진 산다미아노에 사는 농사꾼인 맘마로자 부인에게 성모님이 발현하여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곳에 온 것은 너희에게 많은 은혜와 사랑과 기쁨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이다. 나는 하늘의 모후, 우주의 어머니이다. 내가 주는 사랑은 너희들을 하늘로 인도한다. 나는 너희들에게 호소한다. 이 사랑을 마음에 지니면 평화와 기쁨을 느낄 수가 있다. 모두 마음을 하나로 합쳐 사랑과 기도와 희생을 바치도록 하여라.”

산다미아노의 농사꾼 부인 로자에게 ‘성모 발현’ 이 시작된 것은 1961년부터입니다. 로자는 사내아이 두 명과 계집아이 하나를 둔 어머니로 오랫동안 병으로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복막에 구멍이 뚫려 수술을 되풀이 했으나 이미 더 이상 손을 쓸 수가 없어서 퇴원하여 집에 돌아와 있었던 것입니다. 아주머니인 아테레가 이 집의 살림을 도맡고 있었습니다. 그해 9월 29일 로자 부인에게 불가사의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로자 부인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몸을 움직일 수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밤을 주으러 나가고 집에는 나와 아주머니 두 사람 뿐이었습니다. 무척 더운 날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점심 때 썸이었을 거예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찾아온 것은 젊은 여인으로, 오상과 예언과 병자 치유 등의 기적으로 유명한 비오 신부가 있는 남부 이탈리아의 산타 마리아테레 그라치 성당에 세 자루의 초를 바치러 가고 싶는데 500리라를 적선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문으로 간 아주머니는 이 가난한 집에는 1천 리라 밖에는 없다는 것과 그것도 꾸어온 돈으로 중병에 걸린 조카 로자를 위해 쓰지 않으면 안되

니까 미안하다고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여성은 로자가 누워있는 방까지 들어와서 얼굴을 들여다 보고 “기운을 내세요” 하고 격려를 했습니다. “이제 나는 틀렸어요.” 하고 가냘픈 목소리로 대답하는 로자 부인에게 여인은 재촉했습니다. “자아, 일어나 보세요.” 여인은 양손을 내밀었습니다. “안됩니다. 일어설 수가 없어요.” “일어서 보세요, 내 손을 잡고요.” 말하는 대로 로자가 여인의 양손을 잡았을 때 온몸에 날카로운 충격이 스치고 지나갔다고 합니다. “그 손에 잡아 끌리듯 했는데, 그 순간 저는 일어섰습니다. ‘저는 이제 나왔군요!’ 하고 자신도 모르게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여인은 ‘조용히 하세요, 나와 함께 기도합시다.’하고 말하고, 우리 두 사람은 함께 삼중기도와 비오 신부가 권했다고 하는 주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을 다섯 번씩 외웠습니다....”

그 여인이 로자 부인의 수술자국에 손을 갖다 대자 그 상처가 없어졌습니다. 훗날 의사의 검진에 따르면 복막의 구멍이 아물어 있었다고 합니다. 여인은 로자에게 남부 이탈리아의 산조반니 로톤도에 있는 비오 신부를 찾아가도록 권했습니다. “저는 돈이 없습니다. 도저히 그 먼 곳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하고 로자 부인은 고개를 흔들었으나, 그 여인은 “걱정할 것 없어요. 필요한 것은 주어질 테니까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로자 부인에게 무명의 사람으로부터 우편물이 도착했습니다. 그 속에는 여행에 필요한 만큼의 돈이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인은 아주머니인 아데레에게서 500리라를 받아가지고 집을 떠났습니다. 그로부터 로자 부인은 비오 신부가 있는 곳으로 여행을 떠났고 그 도시에 도착한 날 성당 앞 광장에서 그 이상한 여인과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여인은 처음으로 자신의 정체를 밝혔습니다. “나는 위로의 어머니, 고통 받는 사람들의 어머니이다.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도록 하여라.” 로자 부인이 비오 신부를 만나러 가자 신부는 “한동안 이곳에 머물면서 나를 도와주고 병자들의 시중을 들어 주십시오.”하고 부탁했습니다. 비오 신부의 성당에는 많은 병자가 치유를 원하며 각지에서 모여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로자 부인은 2년 반 동안 비오 신부 밑에서 일을 했는데 신부가 돌연 “이제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그곳에서 또 새로운 사건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로자 부인은 1964년 10월 6일 정오, 비오 신부가 말한 ‘새로운 사건’ 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떤 목소리에 인도되어 집 밖으로 나갔

더니 별의 관을 쓴 성모님이 공중에 나타나셔서 로자 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어린 딸이여, 나는 먼 곳으로부터 왔다. 너는 전세계 사람들에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알리거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지금 건널 수 없을 만큼 무거워져 있다. 나는 선인이나 악인이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다. 나는 모든 사람의 어머니, 사랑의 어머니이기 때문이다. 나는 전세계의 사람들이 모두 구원받기 위해 기도해야 할 것을 알리러 왔다. 나는 앞으로 매주 금요일에 이곳에 오겠다. 그리고 너에게 내 뜻을 얘기하겠다. 너는 그것을 전세계의 사람들에게 알리도록 하여라.” 로자 부인은 이렇게 대답 했습니다. “저는 가난하고 무지한 여자입니다. 누가 저 같은 것의 말을 믿겠습니까? 오히려 저를 감옥에 집어 넣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모님은 “두려워해서는 안된다. 나는 지금 징표를 보이겠다. 이 배나무에 꽃을 피우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모습을 감추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배나무는 꽃을 가득 피웠습니다. 꽃은 가을의 찬비가 심하게 내린 동안까지 포함해서 3주일동안 계속 피어있었습니다. 그 이후 ‘발현’ 은 매주 금요일에 계속되었습니다. 이곳에서도 많은 내적 외적 치유가 본당에 보고되고 있습니다.

### 로마의 트레 폰타네에서 발현

로마의 ‘성 밖의 성바로 대성당’ 에서 걸어서 약 20분 가량 되는곳에 트레 폰타네(세 개의 샘)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제 2차 세계대전 후 10여 년 까지는 인가가 드문 곳으로 밭과 유칼리나무로 둘러싸인 트라피스트 수도원과 드문 드문 흩어져 있는 농가 뿐이었습니다. 이 트레폰타네라는 이름의 유래는 성바울로가 처형당했을 때의 상황에 있습니다. 성바울로가 이곳에서 참수되었을 때, 그 목이센 군데로 굴러갔는데 세 곳에서 물이 솟아나고 나왔다고 합니다. 트라피스트 수도회는 이것을 기념하고 이 장소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곳을 둘러싸고 성상을 세우고 수도원을 두었습니다. 성모님이 발현하신 장소는 이 수도원의 정면 입구 앞 도로 건너편의 언덕 위입니다.

1947년 4월 12일 부루노 코르나키올라라고 하는 로마 시의 버스 운전사와 그 세 명의 자녀에게 성모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날 오후 부루노는 세 아이를 데리고 트레 폰타네로 놀러 왔습니다. 넓은 초록색 풀밭에서 세 아이들은 공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부루노는 그곳에서 조금 떨어

진 곳에 앉아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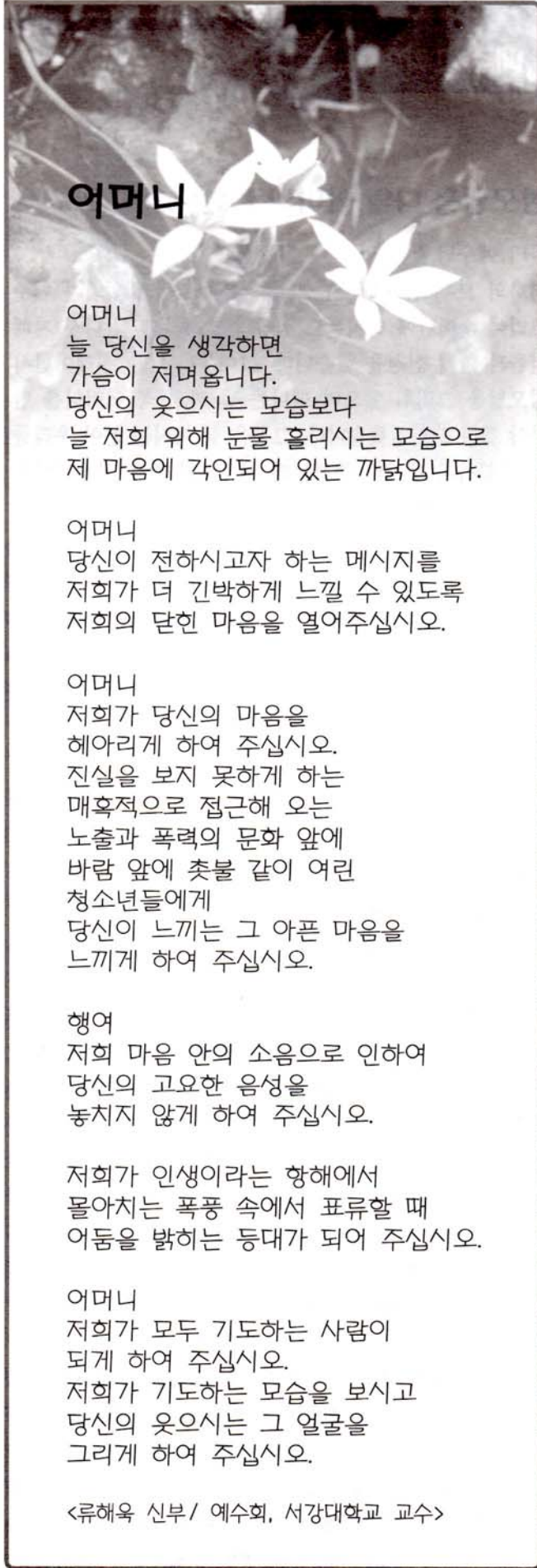
프로테스탄트의 열렬한 제림과 신자인 그는 이튿날 강연에 대비하여 구상을 짜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내용은 성모의 무염시태를 어떻게 부정하느냐 하는 것으로 교회의 청년 회원이 대상이었습니다. 그 때 공이 멀리 날아가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브루노는 아이들에게 재촉을 받고 공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유칼리나무가 무성한 조그만 언덕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그 언덕에는 작은 동굴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가장 먼저 도착한 차남인 프랑크(4세)가 동굴 앞에 꿇어 앉아 양손을 합장하고 동굴 안을 들여다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브루노는 다른 두 아이를 불러다가 함께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때 그들 부자는 동굴안에 있는 아름다운 부인을 보았던 것입니다. 동굴 안은 눈부실 정도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검은 머리에 머리로부터 쓰고 있는 망토는 봄의 풀색깔이었고 옷은 흰색이었습니다. 붉은 띠를 맺는데 그 띠의 끝은 무릎 가까이 늘어지고 맨발인 채로 돌 위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브루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삼위일체이신 하느님 속에 있는 자, 나는 계시의 동정녀이다. 너는 나를 공격하고 있지만 이제 그것을 그만 두어라. 다시 양의 무리(가톨릭 교회)로 돌아가거라. 너는 이전에(가톨릭 신자였을때) 성심의 아홉 번의 금요일의 성체 배령(예수의 성심께 바쳐진, 매월 첫 금요일에 영성체하고 이것을 9회 계속하면 특별한 은총을 받는다고 하는 17세기에 시작된 신심)을 지켰는데 그것이 너를 구한 것이다.”

계속해서 성모님은 당시의 교황 비오 12세에게 보내는 비밀 메시지를 브루노에게 위탁했습니다. 또 기도와 로사리오, 특히 죄인과 비신자 그리고 교회의 일치를 위해서 기도할 것을 권하셨습니다. 그리고 동굴속의 이 죄의 흠(이 동굴은 자주 아베크 족들에게 이용되어 음란한 일이 행해지고 있었다.)을 써서 비신자를 눈뜨게 하기 위해 기적을 행한다는 것, 그리고 브루노가 앞으로 박해를 받아도 성모님께서 지켜 주시겠다는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예언대로 죄의 흠에 의해서 수많은 병자나 부상을 입은 사람이 치유되고, 브루노도 회개해서 많은 박해를 받았으나 끝까지 신앙을 지켰습니다.

이밖에도 성모님의 발현은 세계 곳곳에서 있었으며 모든 것이 기록으로 남아있습니다. **M**



## 어머니

어머니  
늘 당신을 생각하면  
가슴이 저며옵니다.  
당신의 웃으시는 모습보다  
늘 저희 위해 눈물 흘리시는 모습으로  
제 마음에 각인되어 있는 까닭입니다.

어머니  
당신이 전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저희가 더 긴박하게 느낄 수 있도록  
저희의 닫힌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어머니  
저희가 당신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여 주십시오.  
진실을 보지 못하게 하는  
매혹적으로 접근해 오는  
노출과 폭력의 문화 앞에  
바람 앞에 촛불 같이 여린  
청소년들에게  
당신이 느끼는 그 아픈 마음을  
느끼게 하여 주십시오.

행여  
저희 마음 안의 소음으로 인하여  
당신의 고요한 음성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저희가 인생이라는 항해에서  
몰아치는 폭풍 속에서 표류할 때  
어둠을 밝히는 등대가 되어 주십시오.

어머니  
저희가 모두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저희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시고  
당신의 웃으시는 그 얼굴을  
그리게 하여 주십시오.

<류해옥 신부 / 예수회, 서강대학교 교수>

## 성모님을 나의 어머니로 받아들이고...

찬미 예수님, 성모님

평화의 모후 센터 U.S.A. 가 주관하는 2월 16일 1차 메우고리에 순례단에 리치몬드 성당의 로사리오 팀 다섯 자매님들과 함께 신청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가슴 설레이면서 성모님을 그리워 했으며 떠나는 날 까지 꼭 어머니를 만나야 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곳을 잘 아시는 분이 우리들을 공항까지 데려다 주셨는데 처음부터 길을 잘못들어서 한참을 헤메는 안타깝고 초조한 시간이 지나고, 간신히 비행장에 도착해야 하는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은혜로운 피정(메우고리에 순례)을 떠나려할 때 사탄이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끈질기게 방해하며 분심을 일으키는 것을 체험한 것이지요. 막강한 힘의 무기(목주의 기도)를 갖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세속적인 지식으로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할 때는 오히려 더욱 더 어려운 일이 겹친다는 것도 이런 저런 일을 통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메우고리에 머무는 동안 한방을 쓰게된 내 방의 친한 짝꿍이었던 조지아에서 온 정발바라(메우고리에 방문이 4번째이며, 웨인와이블의 책 '메우고리에'의 번역자) 자매님을 만나게 되면서 그동안 살아왔던 나의 삶이 바뀌게 되는 은총을 받았습니다.

피곤한 마음에 염치도 없이 양해를 구하고 먼저 씻고나니 쪽 쉬어서 피로를 풀고싶은 마음에 잠자리에 들고싶었습니다. 그런데 정 발바라 자매님이 새벽에 십자가산에 간다고 해서 나도 가고싶으니 함께 가자고 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새벽 2시쯤 되었을 때 십자가산에 간다고 하시는 몇분들의 분주함에 잠이 깨었습니다. "아이구 나는 피곤해서 좀 더 자야겠다." 하고 이불을 꼭 뒤집어쓰고 눈을 감고 잠을 청하려 할 때 "이것이 하느님의 부름심인것 같다." 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죽으면 어차피 썩어 없어질 몸인데 이곳에 와서까지 몸을 아끼면 무엇을 하랴... 하는 마음에 피곤한 몸을 일으키며 이미 문밖을 나서려는 일행을 향해 기다려 달라고 하곤 허둥지둥 준비했습니다. 감기들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걱정을 들으면서도 나를 두고 먼저 갈까봐 마음이 급해서 걸음아 날 살려라 하며 함께 십자가산을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어두움이 짙게 깔린 그 새벽길을 발걸음을 맞추어 다함께 목주기도를 하면서 십자가산을 향해 가는 길은 정말 은혜로운 시간이었습

(20) MEDJUGORJE



니다. 급한 마음에 손전등도 없이 갔지만 달빛과 별빛에 의지하며 십자가산 앞에 와서 고개를 들어 쳐다보니 제법 높아보였습니다. 십자가산에 있는 예수님의 십사처를 목상하며 가는 십자가의 길은 가도 가도 끝이 없을것 같은 거처른 돌산이었습니다. 캄캄한 밤에 바람은 몹시 세차게 불고 추운 그길은 앞을 보면 울퉁불퉁한 돌들 뿐이고 내려가자니 까마득한 언덕이라서 죽으면 죽으리요 하는 마음으로 목주를 꼭 쥐고서 열심히 열심히 올라갔습니다. 드디어 14처를 지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15처에 도착해서 산 정상에 그 거대한 십자가를 쳐다볼 때의 그 감격이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하느님께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그 십자가 산을 내려올 때도 역시 차갑고 세찬 바람을 느꼈습니다. 그 때 이곳은 마치 호렘산 같았고 내 짝 정 발바라는 엘리야 선지자의 후배(?)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 발바라 자매는 좀 마른 체격에 아름답게 빛나는 눈을 가진 여인인데 그 세찬 바람에 날라가버릴까

봐 마음 조이며 무사히 내려가게(날라가지 않게) 해 주십시오 기도드리며 내려갔습니다. 함께 간 일행 중 가장 연세가 많으신 80세가 넘으신 할머니께서 경충경충 뛰시며 돌산을 내려올 때 함께 온 따님이 우리 어머니쯤 도와달라고 하셨는데도 할머니는 아랑곳없이 혼자서 열심히 내려가셨습니다. 십자가산은 올라갈 때 보다 내려갈때가 더 어렵고 힘이 들기 때문에 나도 할머니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보시고 안심이 되셨는지 서로 손을 꼭 잡고서 의지하며 산을 내려올때는 지난날 자녀들을 기르실 때 고생하시던 이야기도 해주시며 사이좋은 친구가 되어서 내려온, 메주고리에서 주님을 뵈게된 첫번째 밤이었습니다. 같은 날 오후 2시에 우리 일행 45명과 서울과 미국 각주에서 오신 분들과 그곳 주민들과 함께 또 십자가산을 오르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20대도 아닌 60이 가까운 내가 감히 하늘을 하루에 누번씩이나 오르게 해 주시니 주님께 드거운 감사를 드리며 그것은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하기에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영광과 찬미를 드렸습니다. 나같은 빈 껍쟁이가 발현산에서 성모님의 향기(무엇이라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운 향기)를 통하여 수시로 성모님과 만났던 은혜는 나의 남은 일생에서 도저히 잊을 수 없는 아름다운 체험이 될 것입니다. 새벽닭의 소리와 길안내를 해 주던 강아지들과 도저히 해를 쳐다볼 수 없는 낮시간에 주님께서 해를 볼 수 있게 해 주시어 아름다운 빛들과 함께 해가 춤추는것을 보여 주셨던 일들, 어느날 새벽에 발현산에서 십자가산을 바라볼 때 신비한 번개불을 두 번씩이나 보여 주셨을 때는 죽을때가 가까와졌나보다 하고 무서워서 말한마디도 감히 못할 것 같은 심정으로 하느님께 대한 경외심과 두려움을 갖기도 했습니다. 성모님의 발현을 보는 여섯 명의 목격증인들의 최초의 보호자 이시며 영적 지도신부님들 중 한분이신 요조 신부님과과의 만남은 기적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성모님을 내 어머니로 받아들이고 믿게 해 주신 뜨거운 만남이었으며 요조 신부님의 크로아티아 말과 통역을 해 주시는 분, 그리고 성령님이 삼위일체 처럼 내 가슴 깊은 곳에 특별한 체험을 새겨주신 주옥같은 시간들이었습니다. 내 어머니이신 성모님을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의지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을때 눈물 콧물을 쉴새 없이 흘리며 새로운 희망과 평화를 마음 가득히 갖고 새 출발 하는 세레나로서 남은 나의 삶은 아름다운 장미 꽃

다발을 정성들여 엮어서 어머니의 발아래 고이 고이 바치는 삶을 살기로 몇번이나 다짐했습니다. 그러기위해서는 지상에 오시어 말씀하신 기도, 단식, 성서말씀 읽기, 미사와 성체를 온 정성을 다해 하는것과 고백성사를 충실히 지키는 딸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또 사랑하는 나의 이웃을 변화시키는 도구로써 어머니의 사랑을 본받고 실천하며 늘 기도하는 생활을 하는 새로운 딸 세레나로 다시 태어나자고 되새기며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지면을 통해서나마 박창득 몬시놀님과 수사님, 세 분의 수녀님과 남 그레고리오 형제님 그리고 함께 순례하며 아름다운 체험을 나누었던 모든 형제 자매님, 특별히 내 친한 짝꿍 정발바라 자매님께 감사와 사랑을 전하고 싶습니다. 모두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어 다시 또 메주고리에 순례길에서 만나뵈도록 해요.

주님과 성모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버지니아 리치몬드 성당의 임세레나>

##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가난해도 행복합니다. 완전한 기쁨과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신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성모님께 저를 위하여 또 Austin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부탁드립니다. <Austin 에서 Hwang Maria Magdalena 드림>

## 영지 지매님들의 신앙 체험담을 보내주세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느님의 현존하심을 체험하신 후 지내시는 하루 하루가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신지요. 예수님과 성모님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소중한 체험을 우리의 이웃에게도 나누어 주시어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의 증거자가 되시도록 초대합니다.

<원고 보내실 곳>

### 평화의 모후 센터 U.S.A.

22 Round Swamp Rd. Huntington, NY11743  
Tel.(631)367-6191 / Fax.(631)367-6194

## 내 등의 짐

### 하느님 은총이 함께 하시길...

여러가지로 부족한 저희 부부가 두 분이 하시는 크신 사업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드리게 된 것 큰 영광입니다. 지난 창간호는 이곳의 두 성당에 분산 배포했고 만일 포틀랜드 성당에도 아직 들어가지 않는다면 한 30부 만이라도 보내 드릴까 합니다. 물론 세 성당에 각각 100부씩은 들어가야 될 줄 아오나 성당에서 어느 분이 나서주실때까지는 3곳에 분산 배포하고자 하오니 가부간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에 보내주신 책은 잘 읽고 교우들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께서 하시는 하느님 사업에 은총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오며 저희도 두 분을 위한 기도에 동참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허미카엘 & 데레사>

### 눈물이 핑 도네요.

배풀어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몇자 적어봅니다. 저는 지금 메주고리예를 다녀온 것이 혹시 꿈은 아니었나 싶지요. 제가 메주고리예를 다녀오기 전부터 성모님께서 준비해 주셨고, 그곳에 있는 동안에도 제 자신 안에 깊은 깨달음과 함께 사랑의 선물을 안겨 주셔서 벅찬 마음으로 돌아왔고 지금은 더욱 구체적으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해주셔서 유행가 노래 가사처럼 '눈물이 핑 도네요 정말로 ... (호호호)' 입니다. 정말로 큰 은총을 배풀어 주셨던 시간이였습니다.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게 해 주신 그레고리오 형제님께 성모님의 사랑과 함께 깊은 감사를 드려요. 기도할게요. 성모님의 구원사업에 도구가 되신 형제님과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껏 느껴보지 못한 기쁨의 부활절이 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벵쿠버에서 신 아네스>

### 메주고리에 소식지에 도움주시는 분들

뉴욕 그레이트넥 김한기 신부, 뉴욕 맨하탄 성당 김기수 신부, 예수회 류해욱 신부, 아틀란타 순교자의 모후 한인성당, 미네소타 최종건, 필리델피아 황암브로시오, 신시네티 김데레사, 뉴저지 이데레사, 뉴욕 베이스айд 성당 평화의 모후 기도회, 뉴욕 퀸즈성당 성령기도회, 뉴욕 퀸즈성당 구크리스티나, 뉴욕 맨하탄 한인성당 이경숙, 타코마 성당의 자매님들, 볼티모아, 뉴욕 퀸즈성당 황요셉, 캘리포니아 이데레사, 캘리포니아 김철석 부부, 타코마성당 김정원 부부, 시애틀 허미카엘 데레사 부부, 뉴욕 베이스айд 손데레사 <지면상조청은 생략되었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세상을 바로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내 등에 있는 짐 때문에 늘 조심하면서 바르고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이제보니 내 등의 짐은 나를 바르게 살도록 한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사랑을 몰랐을 것입니다.

내 등에 있는 짐의 무게로 나의 고통을 느꼈고 이를 통해서 사랑과 용서도 알았습니다.

이제보니 내 등의 짐은 나에게 사랑을 가르쳐 준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아직도 미숙하게 살고있을 것입니다.

내 등에 있는 짐의 무게가 내 삶의 무게가 되어 그것을 감당하게 하였습니다.

이제보니 내 등의 짐은 나를 성숙시킨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겸손과 소박함의 기쁨을 몰랐을 것입니다.

내 등의 짐 때문에 나는 늘 나를 낮추고 소박하게 살아왔습니다.

이제보니 내 등의 짐은 나에게 기쁨을 전해 준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물살이 센 냇물을 건널 때는 등에 짐이 있어야 물에 휩쓸리지 않고.

화물차가 언덕을 오를 때는 짐을 실어야 헛바퀴가 돌지 않듯이

내 등의 짐이 나를 불의와 안일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게 했으며.

삶의 고개 하나 하나를 잘 넘게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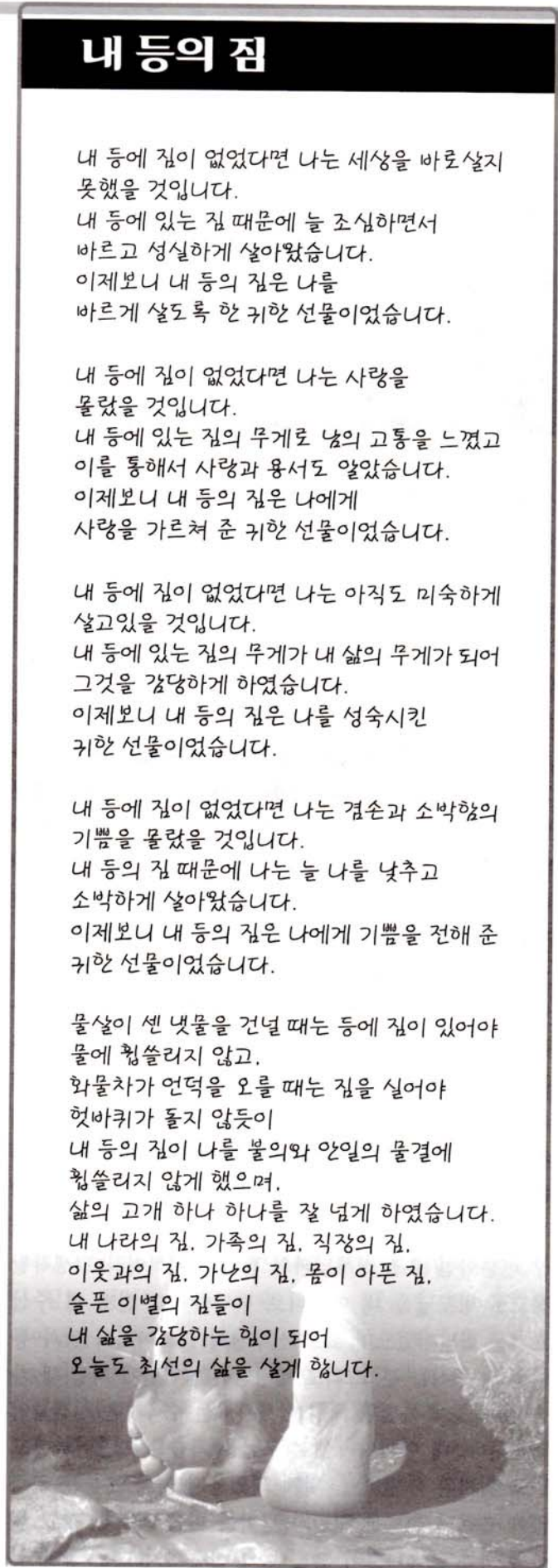
내 나라의 짐, 가족의 짐, 직장의 짐.

이웃과의 짐, 가난의 짐, 몸이 아픈 짐.

슬픈 이별의 짐들이

내 삶을 감당하는 힘이 되어

오늘도 최선의 삶을 살게 합니다.



## 성모님 발현 20주년 기념 메주고리에 6월 순례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느님의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전해주시기 위하여 성모님께서 메주고리에 발현하신지도 20주년이 되었습니다. 성모님은 당신을 '평화의 모후' 라고 하시며 하느님께서서는 우리들의 삶을 보살펴 주시며 축복해 주시는 사랑의 하느님이시기에 일상 생활의 제일 첫번째 자리에 모셔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응답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순례 일정 : 2001년 6월 22일 부터 7월 1일 (9박 10일)  
 지도 신부 : 임언기 안드레아 신부(와일플레인스 성당 주임)  
 김기수 프란시스 신부(맨하탄 성당 주임)  
 순례 경비 : \$1590 - 뉴욕 JFK출발기준  
 연 락 처 : 남 그레고리오 Tel.(631)367-6191, Fax.(631)367-6194

① 발현 20주년 기념일행사 관계로 항공사의 좌석 예약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순례 신청을 조기에 마감 하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현대식 숙박시설을 갖춘 2인 1실, 또는 3인 1실과 함께 1일 3식(아침, 점심, 저녁)을 제공합니다.
- 메주고리에 순례 일정에는 유럽에서 긴 역사와 견고하기로 유명한 성곽도시로써 아드리아 해안가의 아름다운 경치로 널리 알려졌을 뿐만아니라 가톨릭을 고수해 오며 1700년 동안이나 썩지않고 있는 실반 성인의 기적의 유해가 있는 유명한 신앙의 유적지인 Dubrovnik성지순례와 Split에 있는 성지순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메주고리에 순례를 원하시는 신부님과 수녀님들께서는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20명 이상의 그룹은 원하시는 날짜에 순례일정을 정하여 드릴 수 있습니다.
- 평화의 모후 센터 U.S.A.에서는 세계 곳곳에 발현하시어 우리들을 위하여 구원의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성모님의 소식지를 매 월 발행하고 있습니다.
- 메주고리에에 관한 서적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메주고리에에서 주신 성모님의 메시지가 1, 2, 3편의 테잎으로 제작되어 있습니다.
- 매 월 순례가 있으니 남 그레고리오 형제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8월 청소년들의 메주고리에 피정

### International Youth Festival at Medugorje

메주고리에 본당에서는 매년 8월 첫주를 청소년을 위한 주로 정하고 Youth Festival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물질만능과 인간성 상실의 시대에 살고있는 전세계의 청소년들에게 자신들의 삶 안에 함께하고 계시는 하느님과 성모님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며, 영육간에 건강한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매년 실시되는 이 행사는 전세계의 청소년들이 참석하여 어머니이신 성모님의 축복과 함께 하느님의 현존하심을 체험함으로써 변화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한인 청소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순례 일정 : 2001년 7월 29일 부터 8월 6일 (8박 9일)  
 지도 신부 : 추후 발표  
 순례 경비 : \$1590 - 뉴욕 JFK출발기준  
 연 락 처 : 남 그레고리오 Tel.(631)367-6191, Fax.(631)367-6194

## 평화의 모후 센터 U.S.A.

- 1) 거룩한 공의회는 모든 평신도들이 성령의 움직임에 기꺼이 아낌없는 마음으로 응답하고 또한 지금 이 시간에도 그들을 특별히 긴급하게 부르시는 그리스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호소한다. -바티칸 공의회 평신도 교령 33항- 는 말씀에 응답하여 “너희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는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 2) 1981년 6월부터 현재까지도 메주고리예라는 작은 산골마을에 매일 발현하고 계시며 매달 25일에는 하느님의 메시지를 우리들의 구원을 위하여 전해 주시는 성모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전하고자 합니다.
- 3) 모든 형제 자매님들께서 깊은 체험을 통하여 사랑이 가득한 기쁨과 평화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한 알의 작은 밀알이 되고자 합니다.
- 4) 하느님께 희망을 두고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을 위하여 매달 첫째 토요일에 티없으신 성모 성심에 기도드리며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 메주고리에 성지순례를 원하시는 분께서는 평화의 모후센터 U.S.A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 평화의 모후 센터 U.S.A. 회원모집 안내

성모님의 메시지 ‘메주고리예’ 100부면, 1000명 이상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효과적이고 능동적인 복음화 운동에 적극 참여 하시고자 하는  
 한인 가톨릭 공동체 회원을 모집하오니 관심있으신 분들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평화의 모후 센터 U.S.A.는 여러분의 기도와 사랑으로 운영됩니다.

#### 주문량

- |     |                                   |    |           |
|-----|-----------------------------------|----|-----------|
| (1) | 25부 <찬조금 \$25 + 우송료 \$5> .....    | 합계 | \$30 ( )  |
| (2) | 50부 <찬조금 \$50 + 우송료 \$5> .....    | 합계 | \$55 ( )  |
| (3) | 100부 <찬조금 \$100 + 우송료 \$10> ..... | 합계 | \$110 ( ) |
| (4) | 250부 <찬조금 \$250 + 우송료 \$20> ..... | 합계 | \$270 ( ) |

\* 해당란에  해 주시고 수표 발행은 QPC U.S.A. 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문인

성명	(한글)	(영문)
주소		
전화		팩스

#### 주문처

**평화의 모후 센터 U.S.A.**  
**Queen of Peace Center U.S.A.**  
 22 Round Swamp Rd.  
 Huntington, NY 11743  
 Tel. (631)367-6191 / Fax. (631)367-6194